

1. 선사시대의 회화

1. 한국회화의 시원을 이루는 선사시대 암각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2. 암각화 이외에 회화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3. 선사시대 회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1. 선사시대 암각화

- 암각화(岩刻畵)란: 바위의 표면을 쪼아내거나 갈아 파거나 그어서 어떤 형상을 새겨 놓은 것.

cf) 암채화(岩彩畵), 암화(岩畵)

- 반구대 암각화

울산 대곡리 태화강 지류

6.3 x 3 m의 반반한 수직 바위 면에 200여점의 구체적인 물체의 모습 그림

-암각화의 내용:

바다생물 · 육지동물 · 사람 · 각종 기물 등

-표현 방법:

간결한 묘사

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표현

생명력

-제작배경:

식량을 얻기 위해, 식량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주술적 기원을 위해 제작
선사시대 사람들의 주술적 신앙과 관련

- 천전리 암각화

9.5 x 2.7 m의 병풍처럼 생긴 암벽면에 새긴 그림

-암각화의 내용:

-사슴 등의 동물상, 인물상

-마름모꼴·물결문·동심원 등 추상적 도형

-선각의 글씨와 인물, 동물 등

-제작배경:

-추상적 도형은 농경생활과 관련

-풍요와 다산 기원

-선사시대 사람들의 주술적 신앙과 관련

- 양전동 암각화

마을 뒷산 밑에 있는 나지막한 남향의 암벽 전면에 새겨짐
사람 얼굴 추상화시킨 듯한 도형 & 동심원 등 29개의 그림

장방형의 도형에 구획을 짓고 원문을 새긴 추상적 상징.

신상형 · 방패형 · 양전동식 · 검과형 암각화 등으로 불림.

석검의 형상이 납근의 형상과 유사하여 ‘자손변창’을 상징. 나아가 조상신으로 인격화됨.

주술적 원시신앙의 일환으로 제작 - 풍요와 다산에 대한 간절한 기원 담김.

2. 암각화 이외의 회화적 요소

- 농경문청동기
- 견갑형 동기, 일본 동경국립박물관
- 부산 동삼동 패총 사슴 그림 도기
- B.C. 6000-B.C.2000에 걸친 문화 층

3. 선사시대 회화의 특징

- 주술신앙과 관련: 각각의 형상이 생명을 지니고, 현실에 작용하는 신비의 힘을 지닌다는 믿음.
- 사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숙하게 묘사 -대상을 요약적으로 표현.
-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추상적 표현을 함.
- 힘찬 표현에 생동감이 넘침.

【참고문헌】

- 황수영·문명대, 『반구대』, 동국대학교박물관, 1983
- 한국역사민속학회, 『한국의 암각화』, 한길사, 1996
- 정동찬, 『(살아있는 신화) 바위그림』, 해안, 1996
- 임세권, 『한국의 암각화』, 대원사, 1999
- 『신화, 그 영원한 생명의 노래—울산 암각화에서 무신도까지』, 울산광역시·예술의 전당, 2000